

# C3002 3형 혼합형(VUL)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3형 혼합형(VU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3형 혼합형(VU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862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12.14
운용기간	2020.01.01 ~ 2020.03.31	종속기간	최행으로 별도의 종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li> <li>•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트레이딩,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li> </ul>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3형 혼합형(VUL)	자산 총액 (A)	139	6	-95.70
	부채 총액 (B)	0	0	-98.66
	순자산총액 (C=A-B)	139	6	-95.69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92	4	-95.58
	기준가격 (E=C/D×1000)	1,502.29	1,465.41	-2.45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주식부문] 3개월 간 종합주가지수는 20.2% 하락하였습니다. 1월초 시장은 반도체업종을 필두로 강세를 이어갔으나 월말 중국발 신종 코로나 이슈가 발발, 전반적 위험자산에서 변동성이 촉발되었고, 2월 미국, 유럽 등에서의 확산세가 글로벌 실물경기 우려로 확산되며 하락변동성이 심화되었습니다, 3월 국내외 각종 통화정책, 재정정책 및 금융시장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유국간 감산합의 실패에 의한 유가급락과 통화 및 신용위험이 더해지며 코스피는 월중 약 10년래 최저점을 기록 후 반등, 월중 낙폭을 일부 완화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상승, 음식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반면, 은행, 보험, 운송장업종이 부진했습니다. 수급측면에서는 외국인인 15.5조, 기관인 7.2조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20.6조를 순매수했습니다.

1분기 펀드는 2.45% 하락하여 벤치마크 대비 2.02%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기타금융, 보험, 기계업종에 대한 낮은 투자비중을 유지한 부분이 긍정적인 성과로 작용하였고, 종목별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LG화학, 엔씨소프트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KOSDAQ에 대한 투자 및 의약품, 증권업종에 대한 낮은 투자비중과, 유통업종에 대한 높은 투자비중, 종목별로는 에스엠, 대한해운, 힐라홀딩스 등의 종목선정이 성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동 기간 포트폴리오는 연초 장기 성장성 전망 관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저점매수 관점에서 삼성물산을 비중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차익실현 관점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비중축소하였고, 리밸런싱 과정에서 POSCO, 현대중공업지주를 비중축소하였습니다.

[채권부문] 1분기 채권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및 글로벌 통화완화 가속화로 전강추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1월 금융위 동화정책방향의 경기판단 개선 등으로 분기 초 한때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폐렴(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시장은 빠르게 강세를 반전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글로벌 통화완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금리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

른 유동성 확보 분위기 속에 단기자금시장 경색 및 크레딧 시장 매수호가 실종 등으로 채권시장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분기말을 앞두고 장기물의 위주로 금리하락폭이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1분기 채권시장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펀드 내에서 여채재의 비중을 벤치마크보다 높게 유지하였던 점이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 전구간 금리가 하락하면서 펀드의 듀레이션이 벤치마크보다 높게 유지하였던 점과 2)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3년 및 7년 구간의 비중을 벤치마크보다 높게 유지하였던 부분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1분기 펀드 성과는 벤치마크보다 양호한 성과를 시현하였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문]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국/유로존에서 코로나 이슈가 확산되고 있고 외환/크레딧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2월 중국 PMI에 이어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등 주요 경기지표들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중입니다. 미국/유럽이 중국의 케이스를 따라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편 3월 중국 PMI는 기준선 이상으로 반등하며 과거 전염병 케이스들에서의 V자형 반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연준의 총 150bps 긴급 기준금리 인하 이후 3월 한도도 임시 금통위를 개최,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여 0.75%에 도달했습니다. 이외 회사채매입 프로그램, 달러 통화스와프 계약, 미국 2조 달러 규모 부양책을 비롯한 국내외 재정정책과, 증시 정책으로서 국내외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 등 각국에서 전방위적 대응정책 발표중입니다. 한편 월중 신용회 통과 리스크 및 미국 에너지기법 위주 신용 리스크가 심화되었으나 정책대응들로 월말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치료제 개발이나 확진자 증가세 둔화 등 유의미한 이벤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각종 리스크 및 변동성이 동반될 전망입니다. 다만, 3월 하순 1,500pt선에서 KOSPI 바닥은 확인하였다고 판단하며,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목선정 위주 초과수익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슈를 전후한 각 산업의 변화 동향을 점검하고, 각 업종내 이익기/시성이 높은 기업과 펀더멘털 대비 낙폭과대 기업에 대한 선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채권부문] 다음을 감안하면 채권투자의 메리트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현실화로 대내외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경기둔화와 신용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셋째, 장단기 및 신용 스프레드가 큰 폭 확대됨에 따라 채권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금융안정 패키지 가동 등으로 1분기 말 금리급등을 유발했던 투자심리 위축 현상이 완화되면서 2분기 채권시장은 국고채 3년 0.80% ~ 1.20%, 5년 0.95% ~ 1.45%, 10년 1.15% ~ 1.75%의 레인지 속에 금리하락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당분간 듀레이션은 벤치마크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장기물 매수심리 위축과 2차 추경 부담 등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 압력이 높을 전망입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둔화 현실화로 스프레드의 확대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가 될때 마다 장기물 구간 매도를 통하여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크레딧의 경우 채안펀드 가동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 안정화까지의 시차와 기업실적 우려등으로 약보합세를 전망함에 따라 비중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은행채 및 공사채의 경우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비중을 소폭 늘릴 계획입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3형 혼합형(VUL)	-2.45	-1.23	-1.22	-1.16
(비교지수 대비 성과)	(2.03)	(1.72)	(1.88)	(1.28)
비교지수(벤치마크)	-4.48	-2.95	-3.10	-2.44

※ 비교지수(벤치마크): 국고채 3-5년 4%, 국고채 5-10년 18%, 특수채 2-3년 4%, 특수채 3-5년 21%, 은행채 AA-이상 1-2년 4%, 기타금융채 AA-이상 1-2년 3%, 기타금융채 AA-이상 2-3년 4%, 회사채 AA-이상 1-2년 3%, 회사채 AA-이상 2-3년 4%, KOSPI 25%, 유동성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낸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3형 혼합형(VUL)	-1.16	-2.71	0.67	5.07
(비교지수 대비 성과)	(1.28)	(0.17)	(-0.28)	(-1.81)
비교지수(벤치마크)	-2.44	-2.88	0.95	6.88

※ 비교지수(벤치마크): 국고채 3-5년 4%, 국고채 5-10년 18%, 특수채 2-3년 4%, 특수채 3-5년 21%, 은행채 AA-이상 1-2년 4%, 기타금융채 AA-이상 1-2년 3%, 기타금융채 AA-이상 2-3년 4%, 회사채 AA-이상 1-2년 3%, 회사채 AA-이상 2-3년 4%, KOSPI 25%, 유동성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낸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2	0	0	0	0	0	0	0	0	0	0	2
당기	1	0	0	0	0	0	0	0	0	0	0	1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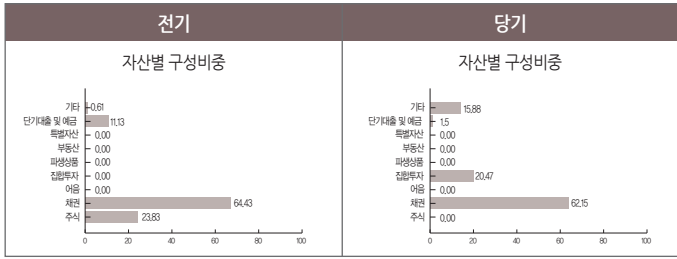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0 (0.00)	4 (62.15)	0 (0.00)	1 (20.4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1.50)	1 (15.88)	6 (100.00)
합계	0	4	0	1	0	0	0	0	0	0	1	6

※ ( ) : 구성비중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국고02250-2506(15-2)	35.17	6		
2	집합투자증권 SMART 200TR	20.47	7		
3	채권 국고01500-2612(16-8)	16.89	8		
4	채권 국고01375-2109(16-4)	10.09	9		
5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1.50	10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2250-2506(15-2)	2	2	대한민국	KRW	2015-06-10	2025-06-10		N/A	35.17
국고01500-2612(16-8)	1	1	대한민국	KRW	2016-12-10	2026-12-10		N/A	16.89
국고01375-2109(16-4)	1	1	대한민국	KRW	2016-09-10	2021-09-10		N/A	10.09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SMART 200TR	수익증권	신한BNP파리비자산운용	1	1	대한민국	KRW	20.47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0.46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1	77	2,276,163	-	-	2119000125
김태현	과장	37	77	2,276,163	-	-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7	2,276,163	-	-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2018.05.29 ~ 2019.12.06	차인식

### 5. 비용 현황

####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3	0	0.02	
판매회사	0	0.17	0	0.1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20	0	0.20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1	0	0.11
	조서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1	0	0.11
증권거래세	0	0.01	0	0.25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7881	0.0786	0.8667
당기	0.7894	0.098	0.8874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6. 투자자산매매내역

####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 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126	4	792	38	512.62	2056.10

※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율이 높을수록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2019-07-01 ~ 2019-09-30	2019-10-01 ~ 2019-12-31	2020-01-01 ~ 2020-03-31
34.69	20.82	512.62

'3형 혼합형(VUL)'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사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